

고흥군,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

드론연구제조 25개기업 입주 453억원 지역 주민소득 창출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민선 8기 비전 달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역점 추진 중인 무인항공 영농기술 특화농공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공단지는 고흥읍 고소리 1170번지 항공센터(고흥만) 일원에 13만 7044㎡(약 4만평)의 규모로 총사업비 198억원을 투입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영개발로 추진된다.

드론 연구·제조 등 4개 업종 25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는 전국 최초 드론 특화단지이다.

군은 그동안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 전남도 산업단지 지정 및 관리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기업 유치 활동도 병행해 현재까지 34개 기업의 입주의향을 확보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약 1500명의 고용 창출과 이에 따른 인구 유입 효과가 나

타날 것으로 예상하며, 약 453억원의 지역 주민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대의 비행시험 공역과 국가종합 비행 성능시험장·고흥 드론센터·드론 상업화 실증지원센터 등 전국 최고의 항공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고흥만 일원에 농공단지가 조성되면 드론의 연구·실증부터 생산까지 드론 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조성으로 고흥군의 드론 중심도시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드론센터 입주기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고도화된 실증 장비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고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지정되는 등 드론 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기림 기자

구례군, 탄력적 통행 제한 시행 지리산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구간(천은사 입구~달궁삼거리)의 탄력적(단계별)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갑작스러운 강설 및 시암재 휴게소~성삼재 구간 낙석 공사에 따라 탄력적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

구례군은 매년 기후 여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에 통행 제한을 실시해 왔다. 올해는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관광 수익 증대를 위해 응급차량과 구례군에 등록된 택시 등은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월동 장비를 장착하고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례·김상현 기자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고흥여성농업인센터

고흥군(군수 공영민) 여성농업인센터(센터장 박상규)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추진하는 '2023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자로 선정돼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군민의 많은 호응을 받으면서 아이돌봄방 운영을 마무리했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녀 보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48회 진행됐다.

지역탐방, 팸파티 체험, 원예프로그램, 피아노,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고흥여성농업인센터는 만 2세부터 초등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꾸준히 운영해왔으며, 농업인 자녀는 물론 맞벌이 부모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인기가 높았다.

박상규 센터장은 “농번기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아이들에게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고 예체능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농업인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기림 기자



고흥여성농업인센터가 지난 11월까지 지역탐방, 팸파티 체험, 원예프로그램, 피아노, 탁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아이돌봄방을 운영했다.

고흥여성농업인센터 제공

귀농어·귀촌인·면민 간담회 고흥군 두원면

고흥군 두원면(면장 류용석)은 지난달 30일 면 회의실에서 귀농어·귀촌인과 기존 면민 27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고흥 인구 10만 기반 구축을 위한 귀농어·귀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9월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 간담회와 달리 귀농어·귀촌인과 정착도우미 뿐 아니라 기존 면민들도 참석했다. 고흥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귀농어·귀촌인들의 고흥을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흥군 관계자가 고흥 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재 준비 중인 다양한 추진 정책을 설명해, 귀농어·귀촌인뿐만 아니라 기존 두원면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두원면에서는 면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귀농어·귀촌인들이 귀농·귀어·귀촌 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경제활동 등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소득작목 및 재배 기술을 공유했다.

양기림 기자

20억원 들여 부유식 접안시설 설치 고흥군 어촌마을 20곳

고흥군이 도·군비 20억원을 들여 어촌마을 20곳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을 마무리했다.

3일 고흥군에 따르면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은 어선 접안과 승·하선 시 어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어업활동 시 수산물의 원활한 운반 등 작업 여건 개선과 어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도양읍, 봉래면 등 10개 읍·면 19개 어항에 20곳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가 새로 설치돼 어촌마을 정주여건이 다소 개선됐다.

부유식 접안시설인 다기능 부잔교는 해상 위에 부유된 부잔교 및 연결 교교로 구성돼 수심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시설이다.

여러 선박이 접안할 수 있으며 승·하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한 남해안의 특성상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확충으로 부족한 접안시설을 확보하고 어민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함과 동시에 편익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안전한 고흥, 어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림 기자

광양시,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본격화

광양시는 전남도와 산림복지진흥원이 각각 주관하는 '2024년 친환경 목재놀이터', '무장애 도시숲 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6억6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친환경 목재놀이터' 사업은 아이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의 모험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제공하고, '무장애 도시숲'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를 위해 기존에 조성된 공원 등에 보행

장애요인 제거 및 시설 정비로 통한 무장애 이용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4년 조성된 중동근린공원은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장미정원 등의 공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중마동 중심부에 위치하고 주변에 유·초·중학교 교육시설, 공동주택, 상가 등이 밀집돼 있어 시민들의 공원 이용률이 높은 반면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7·8월 2개 사업 공모를

신청해 9·10월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비 8억4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예산으로 대상지 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녹음제공, 효율적 공간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힐링하고 소통할 수 있는 녹색도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주민공청회(2회)를 실시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교육기관, 노인정 방문,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 등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 백운장학회, 백운장학생 503명 선정

(재)백운장학회(이사장 정인화)는 지난달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어 2023년 백운장학생 선발 심의(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백운장학회는 지난 8월 한달간 초·중·고 및 대학(원)생 591명, 초·중·고 8개교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해,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503명, 8개교에 6억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대학(원)생의 경우 장애인, 이공계 전공, 다자녀 가정 등은 성적과 재산 수준, 자녀 수 등을 해당

분야별 배점표에 따라 평가해 고득점자 순이고, 일반선발의 성적우수 장학생은 성적과 부모의 소득수준을 평가해 선발했다. 학업지원 장학생의 경우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고득점자순으로 평가·선발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대학(원)생은 올해 신설된 저소득 생활 지원 장학생 40명을 포함한 304명과 지정기탁(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자녀) 13명이고, 초·중·고등학생은 특기 장학생 36명, 선형 장학생 8명, 다문화가정 7명, 다자녀 가정 131명, 이사회 추천(북한이탈주민) 2명, 향우 자녀 2명, 특기지도 우수 학교 8개교다.

학생별 장학금 지급액은 초등학교 30

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50~250만원이며, 특기지도 우수 학교는 150만원이다.

백운장학금은 장학회에서 가입한 정기예금 이자 수익 및 시민·기업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올해 정기예금이 만료되는 다음달 21일 학생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재)백운장학회에서는 백운장학생 선발 외에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 학업장려 장학금으로 2023년 812명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정인화 (재)백운장학회 이사장은 “최근 소득 상위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지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재)백운장학회 규모의 장학재단이 흔치 않음을 볼 때 소중함과 든든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온라인 쇼핑몰 정식 오픈 순천만가든마켓

순천시는 시출자기관인 농업회사법인 순천만가든마켓 주식회사(대표 임승규)가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정식 오픈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은 전국 최대의 정원수 생산지인 순천시의 정원문화산업 발전과 정원 관련 상품·서비스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온라인 판매 여력이 없는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 및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오프라인 매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순천만가든마켓은 이번 온라인 오픈에 맞춰 20일까지 모든 상품을 무료 배송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승규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여 지역 정원수 생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향후 정원수 공판장 등 사업을 확장하여 정원 문화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문의 사항은 순천만가든마켓(061-724-4959)으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